

社說

“대장동 수천억 환수 가능”이라더니 넘긴 건 강통 계좌

여권만 누리는 만병통치 ‘야당 복’

태평로



배성규

정치 에디터

얼마 전 여권 인사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신년 인사를 했다...

주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그동안 사법 리스크 방탄과 검찰·법원 길들이기용 입법 폭주로 역풍을 맞았다...

민주당에선 보수 인사 추가 영입설이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했다...

여권은 1년 전 ‘윤석열 로또’를 맞았다. 느닷없는 비상 계엄으로 윤 정권 스스로 무너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오지부동이다. 국힘과 더불어 스코어 가까운 지지율 격차도 그대로다...

여권의 바람대로 정권 교체에 나설 유능한 야당이 사라진다면 국가적 불행이다. 견제 세력이 없으면 여권은 아무 거리낌 없이 폭주할 것이다...

오늘 국민의힘 행태를 보면 헛된 기대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자멸한 윤의 망령을 부여잡고 아직도 집안싸움 중이다...

작년 ‘尹 로또’ 맞은 윤 “올해도 기대” 국힘 퇴행이 아니라 폭주·악재에 면죄부 보수 영입·흔들기로 30년 집권 플랜 국민은 언제 ‘떨떨한 야당 덕’ 보나

국민의힘은 아직도 탄핵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 어게인’의 그림자를 털어내고 집안싸움부터 멈추는 게 급선무다...

하지 않는다. 자기들이 잘못해도 야당이 더 못하니 겁날 게 없는 것이다. ‘못난 야당 덕’ ‘국힘표 면죄부’라고들 한다...

야당을 향한 국민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국힘이 계속 변화를 거부한다면 철거 경고장이 날아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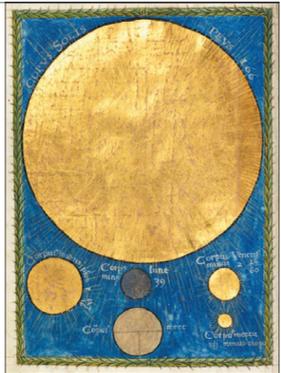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615]

나폴리의 태양

이 책은 1478년 나폴리 궁정 천문학자 크리스티아누스 프롤리아누스가 당시 나폴리 아라곤 왕가의 군주 페르디난도 1세의 아들이자 추기경이던 ‘아라곤의 지오반니’에게 바친 천문학 책이다...

왜 이토록 귀한지 새삼 깨닫게 된다.

태양과 달 주위로는 화성, 금성, 수성이 있고, 가장 가운데에 지구(terre)를 둔 프톨레마이오스적 세계다...



조아키노 데 지간티부스, ‘천문학’ 중에서 해, 달, 지구와 행성들, 1478년경. 양피지에 금박과 채색, 21.2x14cm, 영국 맨체스터 존 라이랜즈 연구소 및 도서관 소장.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소설에서 출발한 이 책은 전체 13개 장으로 이루어졌다. 저자는 우주의 구조, 일식과 월식의 원리, 나폴리 자오선을 기준으로 천체의 움직임 설명하고 식(蝕)을 기록하여 당시 궁정에서 요구하던 천문 지식의 총체를 담았다...

다시 환율 1470원 육박, 이게 한국 경제 실상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8원 오른 1468.4원으로 마감했다. 지난해 연말 정부 당국이 구두 개입과 함께 대규모 원화 매입(달러 매도)으로 1430원대까지 끌어내렸지만...

액이 작년 말 한 달 전체 순매수액을 넘어섰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국내 주식은 오로지 반도체뿐”이고 “미국 시장이 더 유망하다”는 인식이 상식처럼 굳어지고 있다.

환율은 한 국가의 경제 실력을 반영하는 정직한 거울이라고 한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주요 6개국 중 원화의 추락 속도는 6위로 빨랐고, 최근 두 달 동안 원화의 진짜 구매력을 나타내는 환율 지수에선 64개국 중 63위였다...

지금 주식 호황은 우리 경제 전체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경제는 저성장과 내수 침체에 허덕이는데 주가는 몇몇 대형주에 의존한 극단적 쏠림의 결과로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코스피 호황과 수출 호조에 안주하기보다는 원화 추락이 보여주는 우리 경제의 실상에 주목하고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그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업들이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 사슬을 끊고, 노동·교육 개혁을 통해 경제의 근본 체력을 보강하는 일이다...

선거용 ‘태강’ 특검, 오죽하면 법원행정처가 반대하겠나

법원행정처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 특검’을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실상 기존 3대 특검을 재연장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장기 미제 사건은 지난 2024년 1만8198건에서 작년 3만7421건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법원행정처는 “특검 운영은 통상적인 수사 체계의 운영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로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며 “통상적 수사기관의 수사 지연 등 부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특검 수사가 기존 수사와 중복돼 비효율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내란 특검은 27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대부분 특검 출범 이전 공소처 수사로 드러난 사안이었다...

미 국무-재무부 / UN 인권이사회에 요청-제소

미국 제재? 조은석 특검, 오산기지 수색영장 발부판사, 백대현 부장판사

브라질 대법관 가족, 제재 당한 전례 있다. 비자 발급 취소-거절, 미국 내 자산 동결, 거래 금지 등 반미 SNS 과거 지우기 대유행 중

내란몰이 부역 범조인들

이재명 정권의 이른바 (내란몰이)에 범조인들 (부역) 하고 있다. 특검 수사-재판에서 좌편향을 드러내며 인권탄압을 자행하고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있다...

황교안, 미국 정부에 제소하다

자유 우파 신당 (자유와 혁신) 황교안 대표는 1월 9일 조은석 내란특검과,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영장 발부 서울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제재 요청 제소장을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에 제출했다...



제소장은 * 조은석 특검의 정치적 배경 및 편향성 * 조은석 특검이 저지른 윤석열 전 대통령 비인도적 구금과 친미우파 인사들에 대한 표적수사 등 정치적 숙청 *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의 위법성과 한미 동맹관계 훼손 등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편향 수사를 진행한 잭스미스 특별검사를 (Crazy Jack Smith)라고 비판했다. 조은석의 행태는 잭스미스와 유사하게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법권을 남용하는 전형적 사례이다. 브라질 모라레스 대법관보다 더욱 심각하다.”

지위협정(SOFA) 준수 요구.

백대현 부장판사의 ① 재판 진행 편향 ② 윤 전 대통령 인권 침해 ③ 민주주의 훼손 행위에 대해 UN 인권이사회가 즉각 조사를 진행하고 한국 정부에 공식적 우려를 표명할 것도 요청했다. 또, 백 판사의 행위는 (정당한 법 절차를 밟지 않은 심각한 인권 남용)이므로 미 국무부는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법)에 따라 인권 침해 연루자로 지정, 미국 입국 금지 및 자산 동결 등의 제재 조치를 하라고 했다...

조은석 특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은 국내외에서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주한미군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외교부에 공식 서한을 전달, 압수수색이 SOFA 협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오산기지 출입 통제권을 한국군으로부터 아예 회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입국 금지-자산 동결-금융 제재의 위력

탄핵 정변 과정에서 연예인 교수 등의 반미 좌편향 활동이 성행했다. 우파 성향 미국 여성 운영 유튜브 (천조국 파행)는 미 CIA 신고 캠페인을 벌였다. 국내 좌파 매체들

은 “아무런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조롱했다. 하지만 SNS에 반미 게시글을 올린 사람들의 미국 입국이 잇달아 금지되는 일이 벌어졌다. 요즘 (온라인 과거 지우기 불)이 일고 있다.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컸다.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 뒤 (중공식 전체주의의 망령)이 급속도로 확산, (극좌 전체주의-인민재판 광풍)에 부역하는 판사 검사 경찰 군인 정치인 언론인 등이 적지 않다. (사법 정의의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라는 현실 인식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다.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미국 정부에 대한 제재 요청)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부역자들은 미국발(發) 제재를 무서워한다.

그런 점에서 법무장관-국무총리-대통령권한대행-제1야당 대표 등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고 고든창, 모스 탄 등 트럼프 진영 인사들과도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황교안 대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한미 동맹 수호를 위해 큰일을 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도 특검-판사-경찰 등의 반인권-비민주적 행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한다.

권순환

권순환TV 대표 /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컬럼으로 2026년 1월 12일 게재 되었습니다.

